

5주차

사림파(士林派)의 집권과 성리학적 질서의 확산

김 성 우

- 조선의 성리학파의 출현 과정을 살펴본다.
- 성리학파와 훈척세력과의 갈등을 사화(士禍)를 통해 살펴본다.
- 사림파의 집권과 붕당의 출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.
- 성리학적 지식인 ‘선비’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한다.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성리학파의 출현

- 김종직의 점필재학파(佔畢齋學派)
- 김굉필의 한훤당학파(寒暄堂學派)
- 박영과 송당학파
- 1550년대 이후

02. 훈척세력과의 갈등

- 사화(士禍)의 발생
- 성리학 학파와 사화와의 관련성

03. 사림파의 집권과 노선 투쟁

- 사림파의 집권
- ‘신국가(新國家) 건설론’의 대두
- 붕당(朋黨)의 출현

04. 성리학적 지식인, 선비의 탄생

- ‘선비’와 ‘사(士)’
- 한국 유교화의 진전과 이상적 지식인으로서의 선비
- 이상적인 선비상(象)
- ‘원(原)(proto) 선비’

1차시

성리학파의 출현

학습목표

- 김종직, 김굉필, 박영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파를 살펴본다.
- 1550년대 이후 성리학파의 활동을 이해한다.

학습내용

- 김종직의 점필재학파(佔畢齋學派)
- 김굉필의 한훤당학파(寒暄堂學派)
- 박영과 송당학파
- 1550년대 이후

김종직의 점필재학파(佔畢齋學派)

김종직(金宗直, 1431~1492)

- 부친이자 길재(吉再)의 제자인 김숙자에게 성리학을 배움
- 제9대 왕 성종의 주목을 받음
 - 정희왕후 생시: 함양, 선산의 지방관 부임
 - 김굉필, 정여창 등 다수의 제자 양성
 - 1482년(성종 13년): 동료, 제자들과 함께 발탁
- 사림파의 종장(宗匠)이라는 칭송을 받음

김굉필의 한훤당학파(寒暄堂學派)

김굉필(金宏弼, 1454~1504)

- 19세에 김종직의 제자가 됨

김굉필(金宏弼, 1454~1504)

■ 스승 김종직과의 대립

- 1482년 중앙 무대로 옮긴 김종직은
정치적 영향력과 성리학의 확산을 꾀함
→ 이에 대해 김굉필은 반대함
- 김굉필은 성리학 확산은 ‘도학(道學)’ 실천이 우선,
중앙정계에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봄

김굉필(金宏弼, 1454~1504)

- 제자: 조광조, 김안국, 김정국 등

→ 김굉필을 ‘조선 도학의 비조’로 추앙함

박영과 송당학파

박영(朴英, 1471~1540)

- 김굉필의 제자 정붕에게 성리학을 배움
- 기묘사림 활동기에 등용: 병조참판으로 역임
- 1519년 기묘사화 이후: 고향 선산에서 제자 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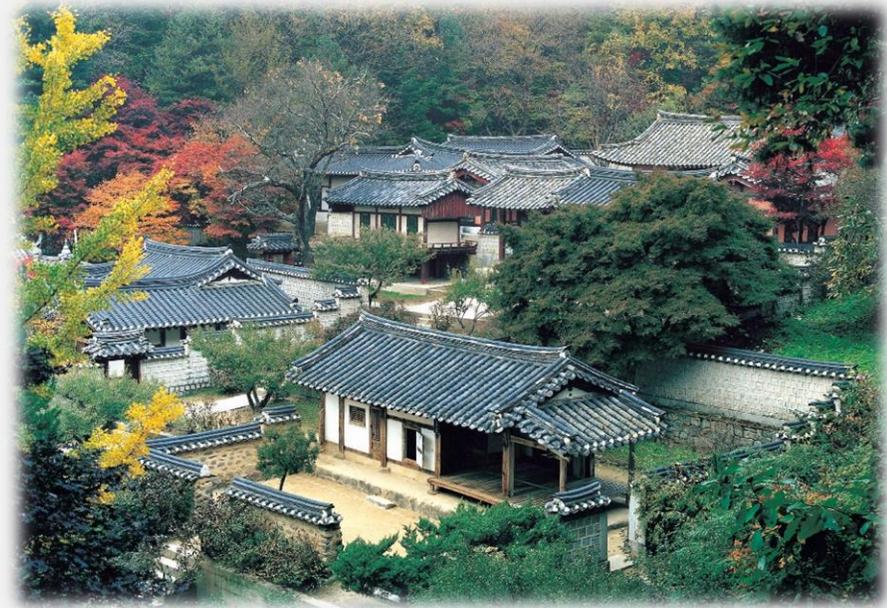
1550년대 이후

1550년대 이후 성리학파

- 경기도 : 서경덕의 화담학파
- 경상도 안동: 이황의 퇴계학파
- 경상도 진주: 조식의 남명학파

퇴계 이황

- 이기이원론(理氣二元論)에 천착
- 독창적인 성리학파 구축
- 이황의 제자들이 신진 관료로 성장, 개혁 주도



안동 도산서원

다음 차시에는

- 훈척세력과의 갈등

[출처01] 문화재청

<https://www.heritage.go.kr/heri/cul/imgHeritage.do?ccimId=6797040&ccbaKdcd=13&ccbaAsno=01700000&ccbaCtcd=37>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